

# 외유성 국외연수 차단 제도 개선

## 임실군의회, 이명로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개정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외유성 국외여행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면서 주목 받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17일 이명로 의원의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안을 개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01임사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이번 규칙안을 처리했다. 최근 지방의원의 일탈 등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외유성 국외여행 논란을 차단

하고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규칙명 및 본문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칙안을 개정하여 공무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인터넷 사

전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기능을 확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며 "의원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제도를 정비하여 엄격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총력전

##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유명 관광지부터 기관 등 방문

순창군에 중국대학교 처장단이 다녀 가며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 희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대학교 처장단 48명을 유치해 관내 주요

관광지부터 농업연구시설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 실랜드, 친환경 농업의 중심인 농업기술센터, 또 그 동안 중

국대학교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 온 훈몽재 등을 방문했다.

이번 유치행사는 전주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 행사로 전라북도 지역의 인재 유치는 물론 순창지역에 향후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일부터 30일에는 중국대학교 학생단 300여명이 순창을 다녀갈 예정이다.

처장단은 방문 첫 날인 16일에 강천산을 둘러보며 이제 막 돌아간 야기 단풍의 매력과 8월 1일 본격 개장을 앞둔 이색적인 단월야행(丹月夜行) 야간기행에 큰 호응성을 질렀다.

2020년에 들어설 강천산 수(水) 체험센터도 미리 소개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수(水) 체험센터는 순창의 응용천수를 활용해 힐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중인 공간으로, 동굴형 체험관, 2021년 준공예정인 관광호텔, 수 테라피시설 등 물을 이용한 힐링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방 문단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의 전통발효소스인 고추장 체험을 위해 장류체험관을 방문해 직접 고추장과 고추장 피자 등을 만들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국대학교 처장단 48명을 유치해 관내 주요 관광지부터 농업연구시설 등을 견학했다.

## 임실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

임실군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발 벗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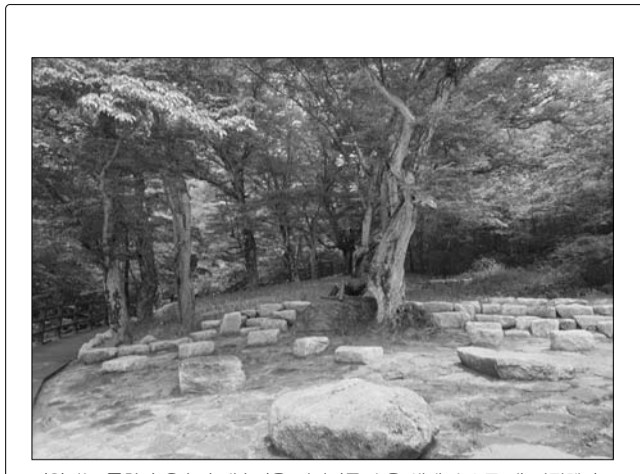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복지요구 해결을 위해 임실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공

간건축, 알과 임실집)과 함께 '2019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 간담회를 지난 16일에 가졌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생활 불편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권기금 및 군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집수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붕개량, 벽체, 화장실, 부엌개량 등 관내 저소득 계층 75가구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주천면 은송리 내송마을 서어나무 숲을 생태 숲으로 새 단장했다.

## 주천면 서어나무 숲 새 단장

### 남원시, 1억 7000만원 들여 휴식공간 조성

남원시는 주천면 은송리 내송마을 서어나무 숲을 생태 숲으로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서어나무 숲은 지리산둘레길 1 구간(주천~운봉)에 위치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뿌리가 드러나는 등 훼손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생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자연을 보호하고 탐방객이 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의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흩으로 복토하고, 그 자리에 산수국, 원주리, 구절초, 기린초 등 총 6400여본의 수목을 식재해 세계적 다채로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나던 길을 옆으로 돌리는 데크 길을 만들었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지리산 둘레길은 남원시의 우수한 자연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가꿔나가 시민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제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 여름철 무더위 가축질병 예방 총력

### 축사내부 소독 등

임실군이 여름철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날씨, 장마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하절기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하여 질병 진단반을 운영하는 한편 공수의 등 지역예찰 요원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축협 공동방제단(4개팀) 등을 활용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장마철에는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사료건조 상태를 유지하며 폐사축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2차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혹서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그늘막 및 환풍기 설치, 신선한 물 공급, 주기적 강제 환기로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고 모기매개성 질병예방을 위해 축사주변 물웅덩이 제거, 살충제 방제, 방충망 설치, 분뇨 처리 등도 반드시 해야 한다.

군은 여름철 소홀하기 쉬운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모기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해 소 유행열, 아까비네, 돼지 일본뇌염 예방백신을 모기출현 전 불철에 이미 지원한 바 있다. 폭염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 감소에 대비하여 스트레스 및 면역증강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품목별 생산자 연구모임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농업인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현장·실습형교육 집중화를 통해 관내 농업생산자조직의 생산기술 수준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생산자 연구모임 교육이 농업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 연구모임 교육은 읍·면 특화작목 육성이 가능한 신품종 포도(샤인머스켓), 사과, 상추 등 총 39개모임 1744명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적 특성 및 특화작목 육성 발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펼쳐지고 있다.

또한 농업현장 애로사항인 신품종 정식방법, 재배관리(물, 비료, 적시), 병해충 방제, 포장관리, 저장, 유통 등에 대한 현장실습형 토론회교육과 더불어 농업인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생산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상우 소장은 "생산자 모임 교육이 생산성과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생산자조직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문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보건의료원

### 여름철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민 건강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보건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인구밀집 지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생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한 대응과 조처를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A형간염과 장티푸스, 세균성설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집단 환자 발생률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와 안전한 음식섭취가 중요하며, 특히 음식 익혀 먹기와 물 끓여 먹기가 생활화 돼야 한다. 또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등 취사 환경관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여름철에는 지카바이러스와 뎅기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예방접종 및 긴 옷을 입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